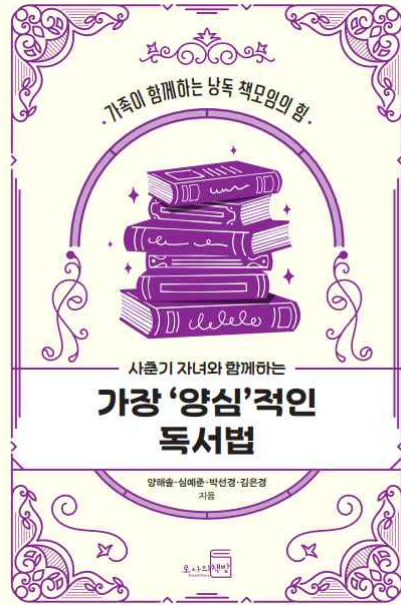


## 사춘기 자녀와 함께하는 가장 '양심'적인 독서법

- 가족이 함께하는 낭독 책모임의 힘 -



#책읽기 #하브루타 #낭독 #사춘기 #소통 #독서법 #책모임

양해솔, 심예준, 박선경, 김은경 지음 | 로사의책방 | 2023년

### □ 도서소개 (출판사 책소개)

한 권 한 권 깊숙하게 읽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독서법  
'사춘기 가족이 함께하는 낭독 책모임' 안내서

- <사춘기 자녀와 함께하는 가장 '양심'적인 독서법>에서는 사춘기 자녀와 소통은 물론 책 한 권 한 권을 깊숙하게, 제대로 읽는 가장 따뜻한 방법을 할 수 있는 '사춘기 가족이 함께하는 낭독 책모임'을 소개한다. 책모임으로 사춘기 아이와 대화 나누기, 자존감 회복과 집중력 키우기, 독서력보다는 공감력을 강조한다. 많이 읽기보다 천천히 읽는 낭독이 어떻게 뇌를 자극하는지 살피고, 토론이 아닌 '이야기 나누기'를 하면서 소통 중심의 독서모임이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을 실질적으로 보여준다.
- 책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춘기 아이 중심 책모임의 7대 원칙이 담겨 있다. 첫째, 가족이 함께 한다. 둘째, 공평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셋째, 책은 아이가 선정한다. 넷째, 모두가 돌아가며 낭독한다. 다섯째, 끼어들지 않는다. 여섯째, 함께 윤독(輪讀)한 후 5분 안에 책 내용에 관한 질문을 만들어 공유한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만난다. 는 것이 그것이다.
- '양심'적인 독서모임에서는 『돌맹이국』,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와 같은 고전부터 『마음을 읽는 아이 오로르』, 『긴긴밤』,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처럼 최근에 발간된 책까지

콜고루 아우른다. 모임 참가자들이 윤독을 한 후 올린 질문과 그중 함께 나누고 싶은 대표질문을 뽑아 한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양심'적인 독서모임의 특징이다. 내 주장을 앞세우고 관철시키는 토론이 아닌 궁금한 점을 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경청의 시간은 독서모임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다.

#### □ 수업 준비

##### 사춘기 아이 중심 책모임의 7대 원칙

- 1) 모두가 돌아가며 낭독(윤독)한다.
- 2) 끼어들지 않는다. (판단, 평가하지 않는다.)
- 3) 책을 읽은 직후, 5분 안에 책 내용에 관한 질문을 만든다.
- 4) 정기적으로 만난다.
- 5) 가족이 함께한다.
- 6) 공평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 7) 책은 아이가 선택한다.

#### □ '양심' 적인 사춘기 책모임 방법(방학용)

- ① 매일 아침 30분씩 윤독하기 책모임 결성(네이버 밴드 초대, 단독방 개설, 밴드 리더 확인)
- ② 책모임 리더가 약속 시간 5분전 온라인 화상회의 개설
- ③ 모두 로그인하면 낭독 순서 정하기(가나다순, 나이순, 생일순, 매번 순서, 제비뽑기, 자원자순 등 매일 다양하게 한다.)
- ④ 30분간 한 사람당 한 장(두 페이지씩) 윤독하기
- ⑤ 윤독 후 5분간 질문 만들기(분량에 따라 3개-5개)
- ⑥ 질문 공유하기
- ⑦ 책을 모두 읽은 후, 리더는 밴드에 올라온 각자의 질문을 모아 밴드에 공유하기
- ⑧ 책거리(책을 모두 읽은 후 이야기 나누기) 전에 멤버 각자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질문 하나를 미리 선정하기  
(※ Tip : 어머니 아버지는 질문을 2-3개 준비했다가, 아이들이 선정한 질문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질문을 뽑는다.)
- ⑨ 책거리 모임은 한시간 정도로 미리 약속하기
- ⑩ 각자가 그동안 만든 질문(보통 15개-30개) 중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질문을 공유하고, 구성원이 5분 이하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⑪ 리더는 한사람이 너무 오래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야기 나누기를 진행 (※어른이 보기에 유치하고 쓸데없는 질문이더라도 중간에 참견하거나 경정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⑫ 이야기 나누기가 끝나면 독후감을 밴드에 올리도록 공지

## □ 엄마와 아이, 친구가 함께하는 책모임 방법

### 1) 낭독하기

하루 30분간 각자가 한 페이지씩 돌아가며 읽는다.

문자로 된 책을 소리내어 읽는 과정에서 스스로 내용도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된 내용을 듣는 사람도 귀에 쏙쏙 들어온다. 윤독을 하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려야 하기에 모두 집중한다.

### 2) 질문 만들기

낭독을 하고 난 후 5분 안에 질문을 3개~5개 만든다. 질문의 내용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사춘기 아이들이 만든 질문 예)

- 소녀는 왜 징검다리를 가로막고 있을까?
- 만약 가난해서 여친 선물도 못 사줄 형편이라면, 내 마음은 어떨까?
- 아들에게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건 왜 비겁할까?
- 나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낼 수 있을까?

### 3) 이야기 나누기

책 한 권을 모두 낭독하고, 질문을 만들어 공유한 이후에는 마지막 책거리에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갖는다. 그 시간을 통해 시간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 이 시간은 토론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는’ 데 포인트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 Q. 박선경 대표 질문

잔혹이들이 전교생들 앞에서 루시 언니에게 사과하고 자기 잘못을 이야기했는데, 루시 언니에게 사과한 방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해순

잔혹이들의 사과는 형식적이었어요. 나라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 알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들거 같아요. 평생 동안 남을 거 같아요.



은경

잔혹이들이 말을 할 때는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전교생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말했으니까 말에 대한 책임, 공식적이기 때문에 나쁜짓을 자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예준

말한 거는 잘한 거 같아요. 잘못은 잘못이니까 그거대로 처벌은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잔혹이들이 하는 행동(학교폭력)은 학교 차원과 사회 차원에서 더 확실하게 처벌해야 하는게 마땅하죠.

### 4) 독서감상문 쓰기

이야기 나누기까지 하고 난 후에는 모임 후기 같은 독서감상문을 쓴다. 기승전결을 갖춘 형식은 필요없다. 기록을 위한 것이다. 글은 쓰다 보면 쓴다. 사춘기 아이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글 쓸 수 있도록 해준다.